

남원 신규사업 204건 예산 확보전

내년 정부 예산 확보대상 180건 드론 홍보관·항공산업 인프라 등 최경식 시장 부처 방문 지원 요청

남원시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조성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원시는 역점사업 동력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2024년도 정부예산 증액·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에 부응하는 총 204건의 핵심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이중 2024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180건, 사업비로는 총 1조6147억원 규모다.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사업이 92건임을 감안하면 월등히 커진 규모다.

나머지 24건의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진행 등에 따라 2025년도 확보대상사업으로 분류됐다.

주요사업의 핵심분야는 미래성장 분야로 ▲드론·도심항공교통(UAM) 홍보전시관 조성 250억원 ▲남원형 항공산업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 690억원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200억원 ▲스마트팜 근충생산단지 조성 180억원 등 산업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사업들로 민선8기 핵심사업들이다.

이어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을 위한 합파우 아트밸리 내 ▲도자문화전시관 건립 150억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제2관 증축 200억원 등의 사



최경식(오른쪽) 남원시장이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강경만 농업안전시설과장을 만나 남원시의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업이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130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133억원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00억원 등의 사업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발굴사업을 토대로 국비 확보액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하고 있다.

부시장들은 지난달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전북도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중이다.

최경식 시장 역시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시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국가예산 확보가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올해가 민선 8기 2년차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목표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불우현 정극인의 묘' 道 기념물 지정

최초 가사문학 '상춘곡' 저자...문화적 경관 우수 '인정'

향토 문화유산인 '불우현 정극인의 묘'가 전라북도 기념물(제160호)로 지정·승격됐다.

불우현 정극인(401-1481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태인 고희동향약'의 창시자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다.

불우현 정극인 묘는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은석마을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묘 위쪽으로는 정극인의 부인 구고 임씨의 묘가 있다. 묘는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등 사신사(四神砂) 자리 잡기와 배후 숲, 봉분(원형봉토분), 석물, 재실 등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완결형 시설 및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묘역에 설치된 석물은 묘표 3기, 망주석 1쌍,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1쌍, 장명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극인은 1401년 경기도 광주 두모포에서 출생했다. 1429년 생원시에 급제해 성균관에서 수학 중 1437년 적벌(斥簿) 상소로 인해 북방(北方)으로 귀양을 갔다가 곧 풀려 처가가 있는 태인(泰仁)으로 내려왔다. 서당을 세워 인근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1451년 6품의 광흥창부승(廣興倉副丞)에 올랐고, 1453년 문과에 급제했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정극인의 묘.

특히 1475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주도의 태인고현동향약(泰仁古縣洞鄕藥)을 제정해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힘썼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최초의 가사 작품으로 알려진 '상춘곡'과 단가의 '불우현가' 그리고 한림별곡체의 '불우현곡' 등을 지어 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3년간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계좌 I·II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I과 II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혜택 규모는 최대 1440만원이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혜택 규모는 최대 720만원이다. 단 자립역량과 교육과 사례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 I의 경우 4월3일-13일,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1일-24일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양돈농가 분노 처리·악취 저감 컨설팅

정읍시가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 악취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 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11월까지 분뇨처리 운영 기술과 악취저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민·관·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축산악취개선지역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 및 소통을 위한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청동의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연계한 축산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품의 효능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악취 발생 요인 분석부터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청년정책정보지 전북도 지원사업 선정

고창군의 청년들이 발행하는 '청년정책정보지'가 전북도의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만 18-45세의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하고 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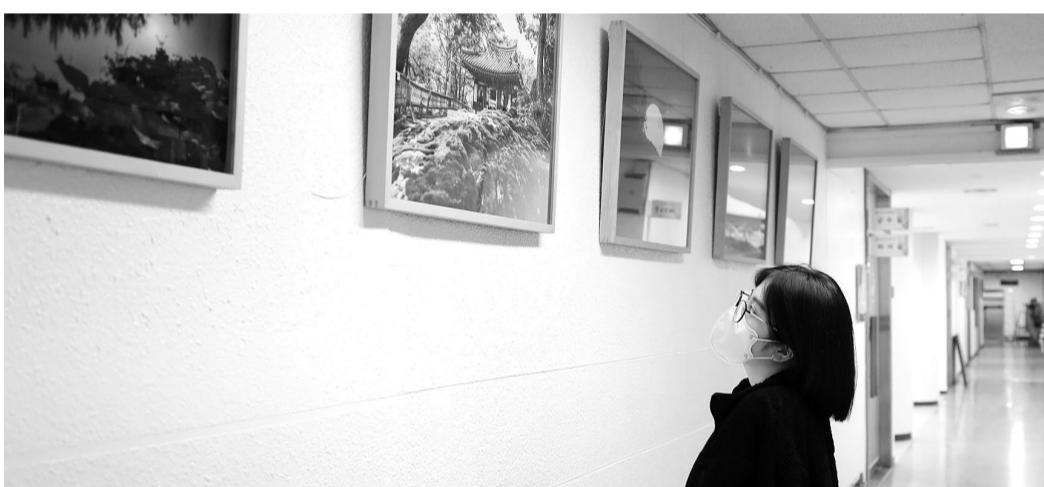
서류심사 과정을 통해 도내 7개 시·군의 12개 사업이 통과했고 이후 사업계획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시·군의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의 청년들이 구상·설계해 응모하고 최종 선정까지 이끌어낸 사업은 '청년 지식 세움 노우-하우(Know-How)' 사업이다.

청년정책을 정보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출간해 청년들의 경험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고창군 청년정책 종합 정보지는 4만4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그리바지(청년벤처스 월간 잡지)'와 청년정책협의체의 협력을 통해 확대 출간될 예정이다. 향후 고창군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사업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청 복도, 미술관 변신



고창군청을 찾은 민원인이 군청 복도에 전시된 미술품을 감상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수장고 작품 40여점 전시

어둡고 무료했던 고창군청 복도가 말끔한 모습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됐다.

고창군은 군청 복도를 새롭게 단장했다며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 박물관 수장고에 잠들었던 예술작품을 청내 복도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군청 1층과 2층 복도에 전시된 작품들은 고창의

유명작가의 회화와 서화, 사진 등 40여점에 이른다.

고창읍성과 청보리밭, 선운산 꽃무릇 등 아름다운 자연이 담긴 작품들로 군청 복도는 초원을 연상할 만큼 시원한 청량감을 더해주고 있다.

군은 주기적으로 전시작품을 바꿔 다양한 예술작품을 내걸 예정이며 관내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전시를 원할 경우 그에 맞는 기획전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